

하나됨과 나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누리십시오”

< 고린도전서 1장 3절 >

- 여름 공동체생활이 7월 31일(목) ~ 8월 3일(주일)까지 진행 됩니다.
- 마지막 날(3일 주일) 주일예배 중에는 성찬식과 물질의 나눔이 있습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허철영 집사 · 강춘자 권사 가정 (감사)

강단을 꽃으로 : 박예영 집사 (생일 감사)

신행(헌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2 - 30 호

2025년 7월 27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프란치스코를 회상하며

이탈리아 로마 북부를 향해 기차를 몇 시간 타고 가면, 넓고 고른 평원지대가 있습니다. 그 평원지대에는 띄엄띄엄 낮은 경사의 구릉들이 나무를 휘감고 존재감을 뽐냅니다. 어떤 작은 기차역에서 내려 느즈막히 구릉을 올라가다보면, 띄엄띄엄 단독주택들이 놓여있습니다. 일부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이고, 일부는 관광객과 순례객들을 맞이하는 게스트룸입니다. 하얀색으로 깨끗하게 정비된 길거리를 따라 올라가다보면 커다란 성당, 수도회, 정원 등이 있습니다. 이따끔 갈색 수도복에 허리띠를 동여매고 샌들을 신은 사람들이 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정원에 피는 장미가 유명한데, 가시가 없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예, 이 마을의 이름은 아시시이고, 일찍이 성 프란치스코가 활동했던 곳입니다.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이 낯선 사람은 전세계에도 드물 것입니다. 얼마 전 선종하였던 교황이 그 이름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빌려온 것이 당연하게도, 프란치스코 교황은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기할만한 것은, 처음으로 기후위기와 생태환경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교황의 이름으로 회칙을 내리고, 유엔 총회연설 등 공개적인 자리에서 환경보호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름의 원본이 되는 성 프란치스코 또한 동식물과 우주에 대한 관심이 깊었습니다. 예컨대 동물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대우받을 수 있는 존재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에, 프란치스코는 동물이나 식물과 관련된 일화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을 사람들을 해치던 식인 늑대에게 다가가 설교하고, 다시는 사람이나 가축을 해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는 이

야기는 매우 유명합니다. 일화에 따르면 프란치스코는 그 감화된 늑대를 데리고 마을을 돌아다녔으며, 사람들로 하여금 늑대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면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그 이후로 2년간 이 늑대는 마을 사람들에게 먹이를 받으며 살다가 죽어, 성대한 장례를 치렀다 전해집니다. 늑대 일화가 생긴 곳에는 교회가 세워졌고, 몇 백년이 지나 보수 공사를 했을 때 벽 안에서 큰 늑대의 유골이 묻힌 무덤이 발견되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태양의 찬가>라는 성가를 짓기도 했습니다. “오 감미로워라 가난한 내 맘에 / 한없이 샘솟는 정결한 사랑 / 오 감미로워라 나 외롭지 않고 / 온 세상 만물 향기와 빛으로 / 피조물의 기쁨 찬미하는 여기 / 지극히 작은 이 몸 있음을 / 오 아름다워라 저 하늘의 별들 / 형님인 태양과 누님인 달은 / 오 아름다워라 어머니신 땅과 / 과일과 꽃들 바람과 불 / 갖가지 생명 적시는 물결 / 이 모든 신비가 주 찬미 찬미로 / 사랑의 내 주님을 노래 부른다.”

매년마다 최고기온이 신기록을 찍으며 기후위기가 피부로 다가오는 요즈음입니다. 프란치스코는 중세 시대의 인물이기에 그의 견해가 우리의 인식과는 다를 수 있지만, 신앙 안에서 천지자연을 받아들이고 서로 공생하는 관계를 이루려고 한 행적은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교훈이 됩니다. 이번 여름 공동체생활을 지내면서, 어떤 믿음과 태도를 기반으로 자연과 상호작용을 할지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이어진 전도사

한주간의 말씀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415, 342, 393 / 433

기도 :

성경 : 민수기 33장

제목 : 모압 평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

1. 내용: 하나님께서 과거행적을 정리하게 하였고, 미래의 일을 명령 하셨다.(What)

<문단구분>

1~6절 출애굽의 시작

7~49절 행군 경로와 아론의 죽음

50~56절 가나안에서 지킬 하나님의 명령

2. 의미: 지금의 모습은 반역과 순종의 결과이다. (Why)

- 1)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의 장소들이 있다.
- 2)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반역의 장소들이 있다.
- 3) 지금 듣는 자들은 가나안 2세대들이다.

3. 적용: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몸을 움직이자. (How)

- 1) 과거의 은총을 분명하게 기억하자.
- 2) 반역에 대한 결과를 기억하자.
- 3)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몸을 움직이자.

환경 교실

올해 교회 종합교육과정이 시작될 때 평소처럼 ‘탁구’를 치려고 했는데, 정승희 집사님 부부 덕분에(?) 이 계획이 완전히 틀어지고 말았다. 정 집사님이 남편분과 함께 어느 주일 오후 내게 오더니, 자신이 ‘에코크라이스트(ecochrist)’라는 SNS 채널로부터 생태살림기도를 구독하면서 느낀 바가 있다며 환경 교실을 열자는 제안을 하셨다. 평소 지구온난화, 미세플라스틱, 미세먼지 등을 주제로 도서 집필이나 강연을 해온 터라, 쉽게 거절하기 힘들었다.

할 수 없이 총무 역할을 할 이어직 집사를 끌어들이고, 사랑방공동체운영위원회 간부급인 정재훈 목사님, 정다운 전도사님 등을 초청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서 환경을 바탕으로 사업화를 구상해야 한다는 평소 생각도 있어 태양광 사업과 스마트팜을 준비하고 계신 박태규 집사님에게도 합류를 요청했다. 물론 관심 있는 분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었고, 이어진 전도사, 이근자 사모님, 황성자 사모님 등이 합류했다.

환경 교실은 주일 저녁 8시 이후에 온라인으로 모였다. 첫 시간의 토론을 통해 강의 주제가 열추 정리됐다. 그동안 총론(환경 위기의 시대), 지구온난화(나와 기후변화 그리고 지구 환경 이야기), 미세플라스틱과 플라스틱 쓰레기, 에너지와 환경, 환경에 대한 기독교인의 자세(생태적 성서 읽기의 필요성)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대부분의 강의는 개인적으로 외부 강의를 했던 자료를 활용했고, 신앙 관련 강의는 정재훈 목사님이 맡아주셨다. 후반기에는 한호남 집사님이 포실포실공동체의 환경사업에 대해, 박태규 집사님이 사랑방공동체의 환경사업(태양광 사업, 스마트팜)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될 것 같다.

1학기 강의를 진행하며 힘들기도 했지만, 나름대로 환경 문제를 정리하고, 참여한 공동체 식구들과 논의할 수 있어 좋았다. 관련 내용을 여름공동체생활 때도 공동체 전체 식구들과 공유하는 자리를 가지게 됐다. 떨리지만 기대된다.

비움사랑방 이충환 집사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설교자 : 정재훈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시편 23 : 1-3
28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영광 영광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누가복음 5 : 20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220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성경낭독
성가대 찬양
설교

고린도전서 12 : 19 - 27 인도자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28) 그루터기사랑방
“ 서로를 돌보아 주십시오 ” 정재훈 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454

410(3)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김병우 정영옥 / 봉헌위원 : 최신혜 / 꽃꽂이 : 김영화
듣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예 배

공동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게 하시고,
진정 하나 된 공동체로 세워 주옵소서. 아멘.

서로를 돌보아 주십시오

서로를 판단함. 고린도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지체들을 향해서 각자 판단을 하면서 '내게 너는 쓸데가 없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각자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판단들은 하나 됨을 해치는 일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열을 염려하셨습니다.

가인의 범죄. 최초의 공동체의 깨어짐은 가인과 아벨의 사건까지 올라갑니다. 가인은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해서 아우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되물었습니다. 가인이 아벨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렸음을 보여주는 대답입니다. 가인의 범죄는 인류 최초의 가정 공동체를 무너뜨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돌봄. 예수님은 수난을 앞두고서 제자들을 먼저 돌보셨습니다. 고난을 앞두고서 자신을 낮추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려움의 시기가 왔을 때도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됨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어렵더라도 서로를 지키고 돌볼 때 진정한 공동체가 됩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최기찬 전도사 / 기도 : 강춘자 권사

4학년 이채원 어린이



환경과 나

4학년 최민용 어린이

이번 LTS5의 주제는 <환경과 나>다.

첫 주는 '기후변화', 두 번째 주는 '미세플라스틱'을 배웠다. 미세플라스틱이 많은 건 알고 있었는데 생각한 것보다 더 많아서 놀랐다.

'탄소발자국'도 배웠는데 그게 사회책에도 나왔다. 그래서 친구들이 얘기를 많이 했었다.

집에서 봤더니 우리집 제습기가 1등급이었다. 그런데 (조사하는) 숙제에 안 썼다. 그래서 엄마가 아쉬워하셨다. 나는 독립하면 최대한 1등급 전자제품을 쓰겠다.

그리고 선생님이 한국 수돗물에 미세플라스틱이 적다고 하셨는데 우리집은 수돗물을 끓여 먹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밀랍랩도 만들었는데 천에 밀랍을 바른 것뿐인데, 접으면 고정되는 게 신기했다.

그리고 홍수나 토네이도가 우리집에서는 안 일어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진이나 산불은 우리 집 근처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서 걱정됐다.

이것 말고도 다른 것도 배우며 LTSS <환경과 나> 수업을 했다. 이번 수업으로 환경에 대해서 더 알게 된 것 같다.

여름 공동체생활을 기대하며

20여 년 전, 공동체 식구로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제 삶에는 익숙하지 않았던 생소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여름 공동체생활은 제게 가장 색다르고 특별한 수련회였습니다.

집회 중심의 수련회에 익숙해져 있던 저에게 사랑방의 여름 공동체생활은 말 그대로 공동체생활에 맞춰져 있는 함께 살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전 연령대가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에 꾸러기 찬양이 나오면 꾸러기들이 방방 뛰며 더 큰 목소리와 울동으로 찬양하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진정 세대를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코이노니아 시간은 개인의 신앙수련에 초점되어 부르짖는 기도로 채워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코이노니아의 시간으로 말씀 안에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진심을 담아 기도해주는 깊은 사림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식사 또한 달랐는데, 단순히 업체에서 제공하는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것이 아닌 각 방의 지체들이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사랑과 진정한 섬김이 느껴지는 식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밤에 하는 강강수월래는 진짜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진귀한 풍경이었습니다. 모든 지체들이 둥글게 손을 잡고 뿔뿔,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뜨거운 무엇인가가 눈시울을 적셨던 적이 있습니다. 신나게 놀이를 한 후 서로 포옹하며 사랑의 인사를 나눌 때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고마워서, 미안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제 공동체생활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시간이라 기대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니요. 또 기대가 되고 설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또 어떤 차별화된 공동체생활이 펼쳐질지 기다려집니다. 단순한 수련회를 넘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꼭 채워지는 그런 여름 공동체생활이 되리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장영미 전도사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이어진 전도사

찬 송 : 250장, 430장, 438장

성 경 : 에스겔 33장 11-12절

말 씬 : 악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향하라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우-러 평화를 위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3차 평화 협상을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추가 회담을 23일(수)에 진행한다고 알렸습니다. 이 땅에 평화와 회복이 찾아오기를.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호우 피해를 입은 지체들>

이번 폭우로 많은 사람들이 호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중에는 교회와 신앙공동체들도 있습니다. 서로 도와가며 잘 회복하기를.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 위해

- 1) 여름공동체생활을 위해, 함께 몸과 마음이 잘 모이기를.
- 2) 더위와 폭우 사이에서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생활공동체 소식 >

큰 비가 온 뒤 큰 피해는 없었지만, 곳곳을 정비하고 청소해야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배수로를 점검하고, 물이 새는 곳을 보수하고 물이 빠지는 관들을 수리했습니다.

여름 공동체를 위해 옥수수를 따서 썰 놓고 청소를 하는 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방 식구들이 여름 공동체 때 불편하지 않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번 주 내내 공간을 청소하고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여름 공동체생활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기대합니다.

< 장영미 전도사 >